

"원칙있는 주주권 행사로 경영간섭 우려 없애겠다"

입력 2010-03-07 17:35 수정 2010-03-08 10:08



"올해 안에 주주권 행사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관치(官治)나 경영간섭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강화되는 주주권 행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 주주권 행사 강화가 들어갔다. 확고한 의지인가.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기금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공단의 의무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4, 5년 뒤면 이 비율이 10%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너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1대 주주로 올라서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책임있는 주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의결권 행사나 사외이사 추천, 배당 요구 등 모든 주주권 행사 방안에 대한 지침을 담을 것이다. 가령 지분율 몇 % 이상 혹은 시가총액 얼마 이상 등의 경우에만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식

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미나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하반기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3월 주총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추천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우선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물론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천할 수 있다고 본다. 학계·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추천 인사 선정을 독립된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작년에 해외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는데 시기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임대 기간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런던의 HSBC 본사 빌딩 등의 시세도 산 가격보다 올랐다. 영국에만 투자가 집중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와 함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힘들었던 국내 기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동산 외의 해외 투자도 늘릴 계획인가.

"해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지난해 각각 4.8%와 3.8%에서 올해는 5.1%와 4.1%로 늘리기로 기금 운용 계획에 정해져 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유망한 해외 주식과 채권을 집중적으로 대거 사들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형주들을 조금씩 분산해 사왔는데 수익률 극대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달 중에 전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그룹의 스테판 슈바르츠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국민연금과 공동 투자를 협의할 예정이다."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대형 매물의 M&A(인수합병)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다.

"금호생명 인수에 참여하면서 그런 기대가 많아진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참여 없이는 '실탄(자금) 부족으로 대형 M&A가 성사되기 힘들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수익성과 안전성 잣대를 가지고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인수 주체인 전략적 투자자(SI)의 신뢰도와 경영능력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이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을 사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43년까지 2465조원으로 10배가량 불어나기 때문에 주식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기준 13.1%인 국내 주식 비중은 올해 16.6%로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증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포스코파워에 2600억원을 투자하는 본계약을 맺는 등 기업 설비투자에도 1조원가량 투자해 산

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올 상반기 중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신용카드나 실시간 은행계좌 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서육진/강은구 기자 venture@hankyung.com

◆ 전광우 이사장은...

△1949년 서울 출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경영학 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 △세계은행 국제금융팀장 △국제금융센터 소장 △우리금융그룹 총괄부회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제금융담당 고문 △포스코 이사회 의장 △금융위원장

프린트

닫기